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살펴본 신학 교육의 세 가지 필수 요소: 인격 형성, 사역 훈련, 신학 지식

김진규(백석대)

1. 들어가는 말

이 연구의 목적은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 온 신학 교육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본 후에 현시대의 신학 교육에 없어서는 안 될 세 가지 필수적인 요소를 제안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 필자는 지난 2000년간 신학 교육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시대마다 신학 교육의 특징을 개괄한 후에 현시대의 신학 교육의 강점은 무엇이고 약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한다. 이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요소가 강조되어야 하며, 어떤 점은 수정되어야 할지를 고찰해 보려고 한다. 지금까지 많이 연구되어 온 신학 지식이나 사역 훈련은 간략히 다루고, 본 연구는 인격 형성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려고 한다.¹ 현시대의 신학 교육의 새

1 에드워드 팔리가 주장하는 '신학의 복원'은 파이데이아로서의 교육이 상실된 것을 통탄하고 이의 회복을 외치고 있다. 파이데이아(paideia)란 문화에 대한 그리스인의 이상을 말하는데, 이에 따르면 교육의 목표는 미덕을 지닌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신

로운 방향 제시를 위해 인격 형성 분야와 이 분야의 개발에 필요한 구성 요소들을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주제별로 다루려고 한다.

1980년대 이후에 신학 교육에 대한 자성하는 목소리들이 자주 들렸다. 대표적인 저술들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선행 연구 차원에서 먼저 간략히 살펴보려고 한다. 1983년도에 출판된 에드워드 팔리(Edward Farley)의 저술 「신학 교육의 개혁: 신학 교육의 분열과 통일」은 신학 교육에 크게 이바지한 책이다. 그는 현재 신학 교육에 있어서 방법론이나 관점이나 다루는 분야가 너무 다변화되어 있고 분열되어 있어 일관성과 목적을 상실했다고 지적한다. 그는 신학 교육 개혁을 위해서 세 가지 방향을 제안하는데, 1) 개인적인 성장, 2) 지적인 탐구, 3) 사회 문화적 이슈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신학이 되어야 한다고 방향을 설정한다. 그는 신학 교육은 지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장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신학 교육에 학제적 연구를 도입하여 철학, 문학, 심리학, 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에서 통찰을 얻을 필요가 있고, 신학적 접근방법 간에도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신학자들과 신학교들은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 개입하여 윤리적 통찰을 제공하고 안내역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한다.²

1985년 조셉 하프와 존 콕(Joseph C. Hough Jr. and John B. Cobb Jr.)이 출판한 *Christian Identity and Theological Education*에서 신학 교육의 위기는 크리스천 정체성의 성격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상실한 것이 원인

학에서 파이테이아는 미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발생하는 지혜적 지식”이라고 팔리는 말한다. 에드워드 팔리, 「신학 교육의 개혁: 신학 교육의 분열과 통일」(서울: 부흥과개혁사, 2019), 201-228. 원제는 Edward Farley, *Theologia: The Fragmentation and Unity of Theological Education* (Oregon: Wipf and Stock, 2001). 이런 관점에서 필자의 강조점은 팔리의 주장과 일치하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실행 방법론에서 필자의 접근은 상당히 다르다.

2 윗글.

이라고 진단한다. 이들은 현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탐구하고,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세워줄 핵심적인 신조와 가치관과 헌신에 대해 파고든다. 신학 교육은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을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본다. 이들은 현대의 많은 신학 교육 모델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성품을 형성하는 것보다 학문적인 엄격함과 학문적 성취에 우선순위를 둔 모델을 따른다고 본다. 이들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신조를 이해하고 후대에 전수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 이론과 실천이 반드시 병합되어야 신학 교육이 교회와 사회에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믿는다.³

1988년도에 출판된 조셉 하프와 바바라 윌러(Joseph C. Hough Jr. and Barbara G. Wheeler)의 저술 *Beyond Clericalism: The Congregation As a Focus for Theological Education*에서 저자들은 현재 신학 교육이 목회자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 대해 비판을 가한다. 이는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에 단절을 초래했다고 본다. 저자들은 기독교에 있어서 회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신학 교육은 목회자와 평신도 모두를 구비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신학이 회중의 살아있는 경험들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하고, 현재 회중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 기회에 대해 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신학이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⁴

1999년도에 출판된 로버트 뱅크스(Robert J. Banks)의 *Reenvisioning Theological Education: Exploring a Missional Alternative to Current Models*는 신학 교육의 현재 주도적인 모델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이들은 한물간 모델들이며 그들이 섬기고 있는 학생들이나 공동체의 필요

3 Joseph C. Hough Jr./John B. Cobb Jr., *Christian Identity and Theological Education* (Studies in Religious and Theological Scholarship, No 1; Chico, CA: Scholars Press, 1985).

4 Joseph C. Hough Jr./Barbara G. Wheeler, *Beyond Clericalism: The Congregation As a Focus for Theological Education* (Chico, CA: Scholars Press, 1988).

를 채워줄 수 없다고 진단한다. 신학교들은 상아탑이란 외딴섬에 갇혀 있어서는 되지 않으며, 그들이 섬기는 공동체와 깊숙이 통합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리고 신학 교육이 교회의 담장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되며, 신자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구비시켜야 한다고 역설한다. 저자는 신학 연구와 사역의 실천이 분리되는 대신에 통합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신학은 실천에 도움을 줘야 하고, 실제적인 경험은 또한 신학을 형성하고 정련하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고 본다.뱅크스는 하프와 월러처럼 사역을 위해서 평신도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신학 교육은 전문적인 목회자들만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되며, 모든 성도의 믿음을 심화시키고 그들의 영역에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⁵

2011년도에 출판된 데이빗 켈시(David H. Kelsey)의 *Between Athens and Berlin: The Theological Education Debate*는 신학 교육을 아덴 모델과 베를린 모델, 두 모델로 분석한다. 아덴 모델은 고대 희랍의 교육 모델로서 인격의 형성과 덕성의 함양이 교육의 중심이었다. 베를린 모델은 현대 연구대학 모델로서 연구와 비판적 분석과 새로운 지식의 창출에 강조점을 둔다. 신학 교육에 있어서 사역을 위해 개인을 구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아덴 모델과 학문적인 엄격성과 비판적 탐구와 학문성을 강조하는 베를린 모델 간에 긴장이 있다고 본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많은 신학교가 아덴 모델에서 베를린 모델로 옮겨갔다고 그는 분석한다. 저자는 아덴 모델과 베를린 모델 모두에게 강점이 있기에 교회와 학문을 고려한 균형이 필요하다고 본다.⁶

5 Robert J. Banks, *Reenvisioning Theological Education: Exploring a Missional Alternative to Current Models* (Grand Rapids: Eerdmans, 1999).

6 David H. Kelsey, *Between Athens and Berlin: The Theological Education Debate* (Oregon: Wipf and Stock, 2011).

2015년에 출판된 후스토 곤잘레스(Justo L. González)의 「신학 교육의 역사」는 초대교회 시대부터 현재까지 지난 2000년간 신학 교육의 역사가 어떻게 진화해왔는지 총체적으로 개관하고 있다. 이어서 앞으로 신학 교육의 나아갈 방향까지 제시하고 있다.⁷ 이 책은 필자의 논지를 위해서 다음 섹션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다루려고 한다.

2. 2000년 교회사 속에서 본 신학 교육

21세기의 한국의 신학 교육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신학 교육을 개관해 볼 필요가 있다. 거시적 안목에서 바라볼 때, 우리의 신학 교육의 장점과 동시에 약점도 더 선명하게 관찰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어느 시대에 지나친 지성주의에 빠지게 되었는가? 어느 시대에 신학이 지성과 함께 삶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균형을 이루었는가? 평신도의 신학 교육은 어느 시대에 제대로 이행되었는가? 신학 교육을 위해서 어떤 기관들이 있었고,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이런 질문에 초점을 맞추어 2000년 교회사 속의 신학 교육을 개관하려고 한다.

1) 초대교회 시대의 신학 교육

초대교회 시대에는 목회자들을 위한 공식적인 신학교는 없었지만, 모든 개종자는 세례받기 전에 2~3년간 교리문답 과정(Catechumenate)을

7 후스토 곤잘레스, 「신학 교육의 역사」 (김태형 옮김),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9). 원제는 Justo L. González, *The History of Theological Education* (Nashville: Abingdon, 2015). 지금까지 언급한 여섯 권의 단행본들 외에 국내외의 여러 저술과 소고들이 있지만 지면상이 정도로 다루고 나머지 저술들은 필요시에 다루도록 하겠다.

거쳐야 했다. 당시 대표적으로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에 교리문답 학 교들이 있었다. 개종하면 어떤 의식을 거친 후에 교리문답 수강생으로 등록하여 수강을 마친 후에 세례를 받고 정식 교인이 되었다. 교육은 지 적일 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를 수반한 것이었다. 새신자는 도덕적 성숙 과 함께 거룩함에 있어서 성장해야 했다. 교리문답 교육(Catechesis)에는 신앙 교리, 성경(특히 복음서),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수반되는 도덕적 윤 리적인 삶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교리문답 수강자는 기독교적 도덕과 가치에 따라 살도록 요청되었는데, 긍정적인 행동(자선, 기도 등)과 금욕 적인 삶(우상숭배, 부도덕함 등)에 있어서 변화가 있어야 했다. 이런 교육 을 마친 후에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교리문답 수강자는 주로 부 활절 야제(the Easter Vigil) 중에 세례를 받게 된다. 세례 후에도 일정 기간 교육과 함께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들의 신앙과 이해를 돕 기 위한 조치였다. 종종 교리교육 수강자는 그들을 지도하고 후원해 줄 양육자의 도움을 받았다. 초대교회 시대의 이런 새 신자 교육은 당시 개 종에 따른 대가(때론 순교)를 확실히 알고 기독교로 들어와야 했고, 당시 기독교가 주변 문화와 너무나 색다르기 때문이기도 했다. 당시 신앙은 매우 공동체적이었기 때문에 신앙이 확실해야 했고, 공동체 삶을 위해 긍정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구비시키기 위해서였다.⁸

초대교회 당시에는 오늘날 신학교와 같은 기관은 없었지만, 교회 지도자 훈련은 매우 관계적이고, 실천적이고, 기독교 공동체의 삶에 깊 이 뿌리박고 있었다.⁹ 목회자들은 지역 교회 공동체 내부에서 선발되었

8 ChatGPT, response to "Describe the early church's training for new converts", August 26, 2023, <https://chat.openai.com/?model=gpt-4>. 위의 내용은 chatGPT 검색 결과를 검토 후 선별 및 보완 정리한 것이다. 필자는 이 소고에서 chatGPT 인용 시 "시카고 스타일" 을 따랐음을 밝힌다.

9 문던(Battista Mondin)에 따르면,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데메트리우스(Demetrio)가 오리게네스에게 단순한 교리를 가르치는 학원에서 신학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원으

는데, 그들의 선발에는 지식과 성품, 영적 성숙도, 교회 내외부의 평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목회자의 훈련은 주로 좀 더 경험이 많은 교회 지도자에 의해 개인적으로 사사되었는데, 실천적 교리적 가르침을 모두 포괄하는 훈련이었다. 목회자 후보생들은 구약과 신약성경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함께, 서서히 등장하는 이단에 대처하기 위해서 신학이 정례화되면서 이들의 신학적 훈련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예전적 훈련(세례와 성찬 등)과 목양적 돌봄에 대한 훈련도 병행되었다.¹⁰

2) 콘스탄티누스 개종기부터 게르만족 침투기까지의 신학 교육

콘스탄티누스의 개종과 함께 개종자의 세례 교육이 점차 축소된다. 개종자들이 엄청나게 교회로 몰려오자, 세례 교육 기간을 단축하게 된다. 처음에는 80일로, 그 후로는 40일로 줄이게 된다.¹¹ 반면에 4~5세기는 히에로니무스, 암브로시우스, 아우구스티누스 등 교회 역사상 위대한 신학자들과 저자들을 배출한 기간이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의 교리 학교들은 계속 유지되었지만, 목회자 양성을 위한 학교는 여전히 존재하지 않았다.¹² 1~5세기 초대교회 시대에 사제와 주교와

로 발전시킬 임무를 맡기면서 기독교 최초 신학대학인 디다스칼레이온(Didaskaleion)이 생겼다고 본다. 그런데 오리게네스가 알렉산드리아를 떠나면서 다시 교리교수 학원 수준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가장 큰 공헌은 신학을 창시한 점이라고 문딘은 평가한다. 바티스타 문딘, 「신학사 1」(조규만 외 옮김), (서울: 가톨릭출판사, 2012), 320. 원제는 Battista Mondin, *Storia della Teologia I* (Bologna, Italy: PDUL Edizioni Studio Domenicano, 1996).

10 ChatGPT, response to "Describe the early church's training for the church leaders", August 26, 2023, <https://chat.openai.com/?model=gpt-4>. 위의 내용은 chatGPT 검색 결과를 검토 후 선별 및 보완 정리한 것이다. 당시 교회 지도자들을 교부라고 칭하는데, 나중에 이는 주교들뿐만 아니라 교리에 있어서 특별한 권위를 지닌 사람들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교부들의 신학적 특징은 성격적, 그리스도 중심적, 주석적, 플라톤적이었다고 문딘은 평가한다. 문딘, *윗글*(2012), 90, 94-102.

11 곤잘레스, *윗글*, 41-42.

12 *윗글*, 54.

같은 지도자들은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했다. 암브로시우스나 아우구스티누스의 배경을 보면 이들은 세속 학교에서 수사학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고전 문헌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개종한 이후에 이들은 자신의 신앙과 학문적 소양을 인정받아 사제와 주교로 임명되었다.¹³

3) 중세 수도원 학교와 대성당 학교의 신학 교육

중세 초기 8~11세기에는 수도원 학교와 대성당 학교에서 신학 교육의 명맥을 유지해 온다. 이때부터는 평신도를 위한 교육은 사라지고 수도원 학교와 대성당 학교를 통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양성하게 된다. 반면에 사제 대부분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¹⁴

중세 수도원 학교가 신학 교육에 미친 영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수도원은 성경과 교부들의 글들과 그리스·로마 시대의 고전 작품들을 보존하고 배울 수 있는 곳이 되었다. 수도원 학교들은 믿음과 이성의 융합을 시도했던 스콜라주의를 발전시키는 모태가 되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수도원 학교와 대성당 학교에서 훈련받은 사람이었다. 수도원 학교는 학문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기도, 명상, 신학 공부와 관련된 예전과 같은 영적인 훈련도 병행했다.¹⁵

중세의 대성당 학교는 도시에 있어 좀 더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다. 교과 과정도 확장하여 신학적인 주제를

13 윗글, 21-22.

14 윗글, 65-76.

15 ChatGPT, response to "Summarize the impact of the middle age monasticism upon theological education", August 26, 2023, <https://chat.openai.com/?model=gpt-4>. 위의 내용은 chatGPT 검색 결과를 검토 후 선별 및 보완 정리한 것이다.

넘어 일곱 개의 교양 과목(3학4과)을 교육하게 되었다. 대성당 학교도 스콜라주의 발상의 온상이 되었고, 나중에 대학으로 발전하는 데 이바지하게 되었다.¹⁶

4) 중세 스콜라주의 시대의 신학 교육

중세 12~13세기에 스콜라주의가 시작되면서 중세 대학이 설립된다. 이 시기의 대표자는 프란체스코회 출신의 보나벤투라와 도미니크회 출신의 아퀴나스였다. 이 시기에 대학은 점점 전문화되어 갔지만 목회 현장에 있는 목회자들이나 교구 생활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져갔다.¹⁷ 이 당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도입하게 되었고, 철학을 신학과 기독교 교육에 접목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사변화(思辨化)된 신학으로 전락하게 되었다.¹⁸ 극히 소수만이 대학 근처에 가볼 수 있었고, 일반 성직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중세 말 14~15세기에 교구에서 섬기고 있던 사제들의 무지는 극에 달했다. 다수가 글을 읽고 쓸 줄 몰랐다.¹⁹

5) 중세 공동생활 형제회와 신학 교육

사변화된 신학과 일반인의 신앙생활에 점점 격차가 커지게 되자, 14~16세기에 새로운 운동이 등장하게 된다. 제라드 그루트(Gerard

16 ChatGPT, response to "Summarize the impact of the middle age cathedral schools upon theological education", August 26, 2023, <https://chat.openai.com/?model=gpt-4>. 위의 내용은 chatGPT 검색 결과를 검토 후 선별 및 보완 정리한 것이다.

17 곤잘레스, 윗글, 87-100.

18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룬 업적은 플라톤적-아우구스티누스적 모델로부터 아리스토텔레스적 모델로의 신학적 전환이었고, 이로 인해 신학 자체가 설화적 성격에서 사변적 성격으로 바뀌었다고 문단은 평가한다. 바티스타 문딘, 「신학사 2」(이재룡 옮김), (서울: 가톨릭출판사, 2017), 750, 752. 원제는 Battista Mondin, *Storia della Teologia II* (Bologna, Italy: PDUL Edizioni Studio Domenicano, 1996).

19 곤잘레스, 윗글, 100-116.

Groote)에 의해 시작된 ‘공동생활 형제회’와 ‘공동생활 자매회’라는 공동체였다.²⁰ 공동생활 형제회는 교육 활동에 적극적이었다. 지역 주민들에게 글 읽기와 산술의 기초를 가르쳤다. 나중에 철학과 신학 교육까지 확장되었다. 형제회 학교에서 니콜라우스 쿠사누스, 토마스 아 켐피스, 에라스무스, 루터, 개혁을 추구했던 교황 하드리아노 6세 등이 배출되었다. 이들은 ‘새로운 경건’을 추구했는데, 이는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 가는 것을 목표로 삼는 꾸준한 경건 훈련의 삶을 제시했다.”²¹ 에라스무스는 “기독교 신앙을 아는 최선의 길은 스콜라주의의 추론과 논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고대 교부들의 사역과 가르침 자체에 있다”라고 했다.²²

6) 종교개혁 시기의 신학 교육

마르틴 루터와 존 칼빈에 의해 주도된 16세기 종교개혁은 신학 교육에 심오한 영향을 미쳤다. 종교개혁 전에는 신학 교육이 가톨릭교회에 의해 통제되었고, 스콜라주의에 초점을 맞추었고, 교황의 권위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변화를 일으켰다.²³

- 1) 성경 중심. 종교개혁은 종교적 진리에 대한 궁극적인 원천으로서 성경의 권위를 일차적으로 강조했다. 이는 신학 교육에 있어서 변화를 일으켰는데, 학자들과 성직자들은 성경을 원어로 공부하고, 교회의 전통보다 성경 본문에 기초한 성경해석을 도모했다.

20 윗글, 117.

21 윗글, 121.

22 윗글, 124.

23 ChatGPT, response to “Summarize the impact of the Reformation upon theological education in a half page long”, August 25, 2023, <https://chat.openai.com/c/48f66b01-6da9-4b72-8a88-6dfbf792b887>. 아래의 내용은 chatGPT 검색 결과를 검토 후 선별 및 보완 정리한 것이다.

- 2) 평신도 교육. 종교개혁자들은 모든 신자가 성경과 신학적 지식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종교교육의 민주화는 학교를 설립하고 성경을 모국어로 번역하도록 이끌었다. 그리하여 평신도들도 신학적 사상에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게 되었다.
- 3) 교리적 명료성. 종교개혁은 조직신학의 발전을 가져왔는데, 신학적 개념을 체계화된 개념으로 조직하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신학 교육 기관들은 신문, 인문, 기독교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과 같은 구조화된 과목들을 제공하게 되었다.
- 4) 목회적 훈련. 종교개혁은 잘 훈련된 목회자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한 강조했다. 신학교들은 신학 교육과 함께 실제적인 목회 훈련을 제공하게 되었고, 그 결과 목회자들이 회중들을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게 되었다.

7) 가톨릭 종교개혁과 신학 교육

개신교 종교개혁 이후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에 맞서기 위해서 16세기에 가톨릭 종교개혁이 있었다. 이는 가톨릭교회의 영적 제도적 삶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가톨릭 종교개혁은 신학교와 대학교와 같은 새로운 교육 기관을 설립하여 목회자들을 훈련하고 가톨릭 교리를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가톨릭 종교개혁은 전통적인 가톨릭 교리와 가르침의 권위를 다시금 확증했고, 핵심 교리 수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트레نت 종교회의(1545~1563)는 가톨릭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사건이었다.²⁴ 이는 교리적인 이슈를 다루었고, 가톨릭의 가르침을 명시했으며, 신학생들은 전반적인 신학 교육을 받아야 함을 천명했다. 이 결정은 가톨릭교회의 신학 교육 수준을 향상했다. 로올라의 익나티우스(Ignatius

24 트레نت 신학은 중세의 스콜라 신학(토마스 신학)을 재천명한 것이며, 개신교에서 제기한 신학적 문제들에 대해서 대응해야 했기에 매우 논쟁적 신학이었다고 문단은 평가한다. 바티스타 문딘, 「신학사 3」(윤주현 옮김), (서울: 가톨릭출판사, 2018), 454-455. 문딘은 Battista Mondin, *Storia della Teologia III* (Bologna, Italy: PDUL Edizioni Studio Domenicano, 1996).

of Loyola)가 설립한 예수회는 이 기간에 가톨릭 교육에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다. 엄격한 학문적 수준으로 소문난 예수회 학교와 대학들은 신학 교육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가톨릭 학교들은 인문주의적인 요소와 스콜라주의의 요소를 커리큘럼에 가미했다.²⁵

8) 17세기 프로테스탄트 스콜라주의와 신학 교육

17세기의 프로테스탄트 스콜라주의는 종교개혁의 유산을 이어받아 조직신학에 특별한 강조점을 두었다. 이 접근은 프로테스탄트 교리의 명료성과 일관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 기간에 각 교파는 각자의 전통을 위한 신조와 신앙고백서에 집착했던 시기였다.²⁶ 장점도 있었지만, 프로테스탄트 스콜라주의 단점은 조직신학에 대한 강조로 말미암아 교리에 대해 지나치게 굳고 교조적인 접근으로 때론 끌려갔다는 점이다. 조직신학과 지적인 토론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목회 사역의 실천적인 양상으로부터 멀어져갔다. 세부적인 교리에 대한 집착이 결국 회중의 영적 필요를 돌보는 일을 등한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²⁷

25 ChatGPT, response to “Summarize the impact of the Catholic Reformation in 16th century upon theological education”, August 25, 2023, <https://chat.openai.com/c/48f66b01-6da9-4b72-8a88-6dfbf792b887>. 위의 내용은 chatGPT 검색 결과를 검토 후 선별 및 보완 정리한 것이다.

26 ChatGPT, response to “Summarize the impact of the 17th century Protestant scholasticism upon theological education in a half page long”, August 25, 2023, <https://chat.openai.com/c/48f66b01-6da9-4b72-8a88-6dfbf792b887>.

27 ChatGPT, response to “Summarize the negative influence of the 17th century Protestant scholasticism upon theological education in a half page long”, August 25, 2023, <https://chat.openai.com/c/48f66b01-6da9-4b72-8a88-6dfbf792b887>.

9) 경건주의 운동과 신학 교육

17세기 말에 출현하여 18세기에 두각을 나타낸 경건주의 운동은 신학 교육에 새로운 영향을 끼쳤다. 경건주의는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마음이 통하는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건과 영적인 경험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신학 교육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는데, 지적인 발전과 함께 학생들의 영적인 삶을 향상하는데 강조점을 두고 있다. 경건주의는 실천신학의 발전에 이바지하였으며, 신학적 원리를 일상의 삶과 사역에 적용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그리하여 신학 교육은 학생들이 목회적 역할을 위해 더 잘 갖춰질 수 있도록 목회적 훈련과 윤리 교육과 사역의 실제적인 면들을 포함했다.²⁸ 반면에 경건주의는 신학 교육에 스콜라주의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도전했다. 경건주의는 종종 신학 연구의 지나친 학문적 지적인 성격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신학 교육에 있어서 좀 더 마음 중심적이고 실제적인 접근을 옹호했다. 무엇보다 믿음과 배움의 틈새를 좁히도록 도전했다. 이는 지적인 탐구와 영적인 성장과 종교적 헌신이 융합되도록 만들었고, 학생들이 그들의 믿음을 학문적인 추구와 결합하도록 격려했다. 또 경건주의는 영적인 갱신과 부흥을 강조했는데, 이는 신학 교육에 전도와 영적 각성을 위한 새로운 열정을 불어넣게 했다.²⁹

28 문단은 경건주의에 대해 이렇게 평가한다. 경건주의는 영혼을 돌봄으로써 결실을 맺었고, 조직신학보다 구약과 신약의 신학을 강조했으며, 평신도들로 하여금 교회의 능동적 구성원으로 회복시킴으로써 새로운 교회 개념을 세웠으며,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기독교적 삶의 실천을 강조했다고 평가한다. 문단, 윗글(2018), 904-905.

29 ChatGPT, response to "Summarize the influence of Pietism in the 18th century upon theological education", August 25, 2023, <https://chat.openai.com/c/48f66b01-6da9-4b72-8a88-6dbf792b887>. 위의 내용은 chatGPT 검색 결과를 검토 후 선별 및 보완 정리한 것이다.

10) 계몽주의 영향을 받은 대학 출현과 신학 교육

19~20세기에 독일 근대 대학 설립 이후의 신학에는 어떤 바람이 불었을까? 이 시기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대학들은 신학과 종교학 연구를 대학 공부에서 배제하려고 했다. 수 세기 전에 대학을 탄생시킨 신학이 이제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 이를 위해서 신학도 하나의 학문(Wissenschaft)이란 사실을 보여주어야만 했다. 신학자들은 신학을 특정한 철학 사조와 연관시켜 설명하거나 역사비평 방법론으로 축소해 과학이라고 주장했다.³⁰ 이와 비슷한 현상이 영국과 미국에서도 등장했다. 하버드대학과 예일대학이 본래 신학교로 출발했는데, 19세기 유럽 대학의 영향을 받아 이들 대학에서 신학부의 존립 자체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독일처럼 신학부에서 학문적 객관성과 역사비평 방법론에 집착하는 결과를 낳았다.³¹

곤잘레스는 계몽주의 사조가 대학과 신학에 미친 영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 1)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근본주의 신학자들 간의 갈등을 조장했다.
- 2) 19~20세기 과학의 발전은 실천신학 분야에 큰 확장을 가져왔다.
- 3) 지식의 폭발은 엄청난 전문화 시대로 도약하게 했다.
- 4) 신학 교육 교과목의 구체화를 불러왔다.³²

그리하여 신학 교육에 있어서 목회자의 전인적인 형성은 사라지

30 곤잘레스, 윗글, 187-188. 역사비평적 방법론은 계몽주의, 칸트와 헤겔 철학, 성서 비평학, 고고학적 발굴 등이 함께 만들어 놓은 결과이다. ChatGPT, response to "Check the background in which the historical-critical method emerged in Germany in the 19th and 20th century", August 25, 2023, <https://chat.openai.com/c/48f66b01-6da9-4b72-8a88-6dfbf792b887>.

31 곤잘레스, 윗글, 190.

32 윗글, 190-197.

고, 단지 졸업을 위해서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신학부와 신학교 교수의 연구논문은 교수의 가치를 평가하는 하나의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 그리하여 ‘출판하든지 짐을 싸든지 하라’라는 말이 돌게 되었다. 과거 종교개혁 시대와는 달리 성도들의 필요를 염두에 두고 책을 저술한 것이 아니라 학자들이 업적을 쌓기 위해서 글을 쓰게 되었다. 결과 학자들의 출판물들 상당수가 “목회사역의 준비나 실천, 또는 교회 공동체 삶 현실에 거의 무용한 실정”이 되어버렸다.³³ 이런 현상은 로마 가톨릭의 신학 교육에도 같이 나타난 현상이었다.³⁴

19~20세기 계몽주의 영향을 받은 대학과 신학 교육은 교수진들의 ‘연구의 독창성과 세밀함’에 극도로 치중하게 되었다. 곤잘레스는 이 기간의 보수와 진보주의 신학에 나타난 결과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다.

근본주의자들은 “무지의 경전화”를 야기하면서 일종의 “성경제국주의적” 분위기를 조성했고, 반면에 일부 자유주의자들은 과학을 경전화하면서 교회의 삶과 목회자들과는 관련성이 거의 없는 학문적 연구와 논의만 진척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³⁵

역사비평학이 서구교회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지대하다. 성경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전통적인 신앙의 손실을 겪었고, 성경 본문 해석에 대한 파편화를 가져왔고, 성경의 영적인 측면보다 역사적, 인간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성경에 대한 세속적 관점을 주입했고, 전통적

33 윗글, 197.

34 윗글, 198. 과거 트렌트 공의회(Council of Trent, 1545-1563) 칙령의 시행에 두각을 나타내었던 생 뱅상 드 폴(Saint Vincent de Paul, 1581-1660)은 여러 신학교를 창설했는데, 그가 강조한 것은 “지식 교육만이 아니라 인격 성장과 영성 훈련”의 독려였다.

35 윗글, 200.

교리에 대해 도전하게 되었고, 역사비평 방법론에 심취한 사람들은 신앙을 잃어버리는 위기를 당하기도 했고, 역사비평 방법론을 둘러싼 교인들의 반응은 분열을 초래했고, 성경해석은 학자들의 배타적인 영역이 되어버렸다. 역사비평 방법론을 모르는 평신도는 성경을 도저히 다룰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다.³⁶ 과거 종교개혁자들은 평신도들의 손에 성경과 성경해석의 권리를 돌려주었는데, 이제 역사비평학은 이를 역전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3. 21세기 한국 신학 교육의 현주소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대학들은 독일을 비롯하여 서구 신학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이 신학 교육 모델을 “베를린 모델”이라고 칭하는데, 이는 베를린 대학(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설립 철학에 영향을 받은 신학 교육의 모델이기 때문이다.³⁷ 이 모델은 서구뿐만 아니라 한국 신학 교육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한국 신학 교육은 서구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신학자들 다수가 서구에서 공부했고, 국내에서 공부한 신학자들도 상당수 서구 신학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신학을 전문화해서 구약학, 신약학, 교리학, 교회사 등으로 나누어 가르치는 것도 이 베를린 모델의 영향이다. 또 신학을 연구할 때, 철학,

36 ChatGPT, response to “Evaluate the negative impact of historical-criticism of the Bible upon Western churches”, August 25, 2023, <https://chat.openai.com/c/48f66b01-6da9-4b72-8a88-6dfbf792b887>. 위의 내용은 chatGPT 검색 결과를 검토 후 선별 및 보완 정리한 것이다.

37 Kelsey, 윌슨, 1-244; 이재석, “신교적 제자도의 관점에서 본 신학 교육 모델의 재고”, 『신교신학』 55집 (2019년 1월), 258-298.

역사학, 사회학 등 다른 학문 분야의 연구 방법을 도입하여 신학을 다루는 것도 이 연구 방법의 영향이다. 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를 갖고 접근하도록 독려하는 것과 (석박사 과정의 경우) 교수와 학생들이 연구 주제를 자유롭게 선택해 연구하게 하는 것도 이 모델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³⁸

신학 교육에 있어서 베를린 모델이 신학 연구의 전문화라는 긍정적인 기여도 했지만, 목회자 훈련과 교회 사역이란 관점을 생각하면 부정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이 모델이 교회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신앙과 학문의 분리: 베를린 모델의 연구 중심적 접근은 때로 신앙의 실천과 학문적 연구 사이의 격차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일부는 이로 인해 신학자들이 신앙의 삶과 거리가 멀어졌다고 느낄 수 있으며, 이것이 교회의 사목(인간 구원의 봉사)과 목회 실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2. 과도한 전문화: 베를린 모델의 세부 전문 분야별 접근은 신학 교육을 과도하게 전문화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일반 신자들이 신학적 토론에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교회 내에서 신학자와 일반 신자 사이의 소통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3. 실용성 부족: 베를린 모델은 학문적 연구에 중점을 둘 때 실용적인 목회나 교회의 실제 상황과 맞지 않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신학 교육을 받은 목사나 전도사들이 교회에서 직면하는 실제 문제나 도전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4. 신앙의 본질에서의 이탈: 연구와 비판적 사고의 강조로 인해, 일부 교회나 신앙 커뮤니티에서는 베를린 모델이 신앙의 본질과 기초적인 가르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하기도 한다.

38 ChatGPT, response to “신학 교육의 베를린 모델이란 어떤 것인가?”, August 28, 2023, <https://chat.openai.com/?model=gpt-4>. 위의 내용은 chatGPT 검색 결과를 검토 후 선별 및 보완 정리한 것이다.

5. 전통과 문화의 소외: 베를린 모델은 때로 전통적인 신앙과 교회 문화를 과소평가하거나 소외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일부 교회나 신앙 커뮤니티에서는 그들의 전통과 문화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하기도 한다.³⁹

베를린 모델이 높은 가치를 둔 신학 연구의 전문성과 독창성은 학문 발전이라는 관점에서는 긍정적이겠지만 신앙의 실천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고, 신학도의 영성이나 덕성의 함양이라는 사역자의 본질적인 가치관을 약화시킬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과 덕성과 신앙의 실천은 초대교회 시대의 개종자들 교육에서부터 함께 강조되어온 바였다. 중세 시대의 수도원에서도 이 정신은 이어져갔다. 이에 대한 강조점이 약화된 시기가 있다면 중세의 스콜라주의와 프로테스탄트 스콜라주의가 만연하던 시대였다. 그리고 19~20세기 베를린 모델이 신학 교육에 들어오면서였다. 중세의 스콜라주의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중세 공동생활 형제회가 등장하여 새로운 경건을 강조했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종교개혁자들은 다시금 신학 교육과 함께 경건한 삶을 강조했다. 프로테스탄트 스콜라주의의 사변화된 신학을 교정하기 위해서 18세기에는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제 베를린 모델을 따르는 사변화된 신학 교육을 고치기 위해서 다시금 종교개혁자들이나 경건주의자들이 목소리를 높였던 신학 교육의 정신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초대교회 시대의 신학 교육은 모든 성도를 위한 교육이었다. 개종자 교리문답 교육은 평신도를 위한 탁월한 신학 교육이었다. 이렇게 훈

39 ChatGPT, response to “신학 교육의 베를린 모델이 교회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인가?”, August 28, 2023, <https://chat.openai.com/?model=gpt-4>. 이 내용은 chatGPT 검색 결과를 검토 후 인용한 것이다.

련받은 사람 중에서 사제와 주교들이 배출되었다. 현재 주도적 추세인 신학 교육의 베를린 모델은 평신도의 신학 이해를 거의 불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어 버렸다. 신학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평신도들은 신학이나 성경을 논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 버렸다. 다시금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받아 신학과 성경해석의 권리를 평신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신학 교육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공식적인 신학 교육은 아니지만, 현재 초대교회 시대의 세례 문답 교육에 버금가는 평신도를 위한 교육을 찾자면, 아마 파라처치의 제자훈련과 이에 영감을 받은 옥한흠 목사의 제자훈련 모델이 아닐까? 제자훈련 모델들은 베를린 모델이 가진 신학 교육의 약점을 상당 부분 보완해주고 있다. 제자훈련은 너무 전문화되고 독창성을 강조하는 학문적인 성향에 별로 관여하지 않고 평신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경 교육을 실행하고 있으며 실제적인 삶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필자가 “옥한흠 목사의 제자훈련이 평신도의 신학 교육에 이바지한 점은 무엇인가?”라고 chatGPT-4에게 문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출력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당히 설득력 있는 관찰이라 생각되어 여기에 인용한다.

옥한흠 목사는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 리더 중 하나로, 그의 제자훈련 프로그램은 한국 교회에서 많은 인정을 받았다. 옥한흠 목사의 제자훈련은 평신도의 신학 교육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크게 이바지하였다:

1. 체계적 교육: 옥한흠 목사의 제자훈련은 체계적이며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체계적인 구조 덕분에 평신도는 자신의 신앙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신앙 성장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2. 성경 중심: 그의 제자훈련은 성경을 중심으로 한다. 성경 지식과 그 해석, 그리고 성경의 메시지를 일상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평신도의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모가 증가한다.
3. 영성 형성: 옥한흠 목사의 제자훈련은 단순한 지식 전달 이상의 것을 목표로 한다. 평신도의 내면적 영성을 형성하고 깊게 다져주는 것에 중점을 둔다.
4. 사역과 봉사 교육: 평신도가 교회 내외에서 다양한 사역과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평신도는 실제로 자신의 신앙을 사역과 봉사를 통해 실천하게 된다.
5. 교제와 공동체: 제자훈련 과정에서는 소그룹 활동이나 다양한 교제 활동을 강조하여, 평신도 간의 깊은 관계 형성과 교회 내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한다.
6. 전도와 선교: 평신도를 대상으로 한 전도와 선교 활동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 교육하여, 평신도가 자신의 신앙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방법론을 갖추도록 도와준다.

옥한흠 목사의 제자훈련은 평신도의 신학 교육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 깊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의 방법론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해외 교회에서도 많은 참고와 적용을 받고 있다.⁴⁰

20세기에 예수 그리스도 제자훈련의 중요성을 재발견한 사람은 아마 네비게이터스(The Navigators) 선교단체 창시자인 도슨 트로트맨(Dawson Trotman)일 것이다. 그의 교육 방법은 성경 암송과 일대일 제자

40 ChatGPT, response to “옥한흠 목사의 제자훈련이 평신도의 신학 교육에 기여한 점은 무엇인가?”, August 29, 2023, <https://chat.openai.com/?model=gpt-4>. 필자는 옥한흠 목사의 CAL세미나에 참여한 후 그의 교제를 갖고 실제 제자훈련을 실행한 경험이 있기에 ChatGPT의 검색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옥한흠 목사의 제자훈련 원리와 실체는 그의 저서에 잘 반영되어 있다.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제자훈련의 원리와 실제」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1).

훈련이었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도록 이끌었으며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을 실천하도록 훈련했다. 제자훈련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훈련하도록 계속된 복제를 강조했다.⁴¹ 그의 지대한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제자훈련이 확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베를린 모델의 영향으로 인해 현재 약화된 신학 교육의 요소들을 교회와 파라체치의 제자훈련 모델로부터 보완하여 성경 교육과 함께 영성과 인격 훈련과 사역의 기술들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옥한흠 목사의 제자훈련 모델을 보면 3가지 요소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1) 성경 중심의 체계적인 말씀 훈련, 2) 영성과 덕성 훈련, 3) 사역과 봉사, 전도와 선교 훈련 등이다. 필자는 이를 간략히 요약하여 인격 형성, 사역 훈련, 신학 지식 세 가지로 정리하여 다루려고 한다.⁴²

4. 21세기를 위한 신학 교육의 방향 설정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보았듯이 신학 교육에는 인격의 성숙이란 요소를 빼 수 없다. 성경을 주신 목적(딤후 3:16-17)도, 사역자를 주신 목적(엡 4:11-12)도, 사역의 목적(골 1:28-29)도 모두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⁴³ 온전한 사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41 ChatGPT, response to “도슨 트로트맨이 제자훈련에 기여한 점은 무엇인가?”, August 29, 2023, <https://chat.openai.com/?model=gpt-4>.

42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임성은 교수가 예수의 제자훈련으로부터 신대원 신학 교육의 약점을 보완하도록 교육학적 관점에서 제안하고 있다. 임성은, “예수의 제자훈련과 신대원 신학 교육 비교연구”, 『신학과실천』 68호 (2020년 1월), 451-474.

43 영성에 관한 저술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을 영성의 주된 정의로 대체로 받아들인다. Chuck Miller, *The Spiritual Formation of Leaders* (Maitland, FL: Xulon Press, 2007); M. Robert Mulholland Jr., *Invitation to a Journey: A Road Map for Spiritual*

사람을 말한다. 이것이 없이는 참 신앙 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 신학 교육의 개혁을 요청하는 대부분 저자들은 이 요소를 언급하고 있다.⁴⁴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인격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 ‘인격’ 하면 주로 ‘덕성’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필자의 생각에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에는 영성, 덕성, (거룩한) 지성, (사역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비전 등을 포괄한다고 본다.⁴⁵ 그리스도의 인격은 덕성이나 영성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의 총체를 반영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혜(거룩한 지성)도 사역의 능력도 하나님 나라의 비전도 그리스도의 인격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필자는 이미 이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한 후에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아」라는 시리즈로 출판한 바가 있다.⁴⁶ 이 부분은 필자가 이미 출판한 저술을 중심으로 다루려고 한다.

Formation, rev. ed. (Downers Grove: IVP, 2016).

- 44 박영희, “한국교회와 신학 교육”, 「신학지남」 57권 2호 (1990년 6월), 6-26 (esp. 25-26); 정일웅, “미래, 한국교회의 목회자 양성을 위한 신학 교육 개선에 관한 연구: 커리큘럼과 신학 교육 방법론을 중심으로”, 「신학지남」 73권 3호 (2006년 9월), 11-48 (esp. 11-12); 황금봉, “목회자의 인격과 하비투스적 신학 교육”, 「목회와 신학」 32권 (2009년), 197-224 (esp. 26-27); 황금봉, “신학 실천을 위한 목회자의 신학과 영성의 상관관계 고찰: 본회퍼의 실천신학적 신학과 영성을 중심으로”, 「신학과목회」 34권 (2010년 11월), 39-70 (esp. 67-68); 양명수, “신학교육 어떻게 해야 하나?”, 「기독교사상」 665호 (2014년 5월), 64-72 (esp. 65-66); 우택주, “교회갱신을 위한 성서교육: 분석과 제안”, 「구약논단」 25권 2호 (2019년 6월), 174-201; 박정근, “독일 경건주의 신학 교육: 슈페너의 「경건의 소망」(Pia Desideria, 1675) 그리고 「신학 연구의 방해 요소에 관하여」(De impedimentis studii theologici, 1690)를 중심으로”, 「한국교회사학회지」 63호 (2022년), 115-146 (esp. 138-139).
- 45 박경수는 16세기 제네바 교회의 목회자 선발과 훈련에 대해 연구하면서 영성, 인성, 지성이란 요소를 언급하고 있다. 박경수, “16세기 제네바 교회의 목회자 선발과 훈련에 관한 연구: 한국교회의 목회자 위기 극복을 위한 모색”, 「장신논단」 44권 2호 (2012년), 192.
- 46 김진규,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아 (영성편)」 개정판, (기독교 인성교육 지침서 시리즈 1; 천안: 생명의 샘, 2019). 앞으로 김진규, (2019. 7)로 인용; 김진규,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아 (덕성, 지성편)」 (기독교 인성교육 지침서 시리즈 2; 천안: 생명의 샘, 2020); 김진규,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아 (능력, 비전편)」 (기독교 인성교육 지침서 시리즈 3; 출판 예정). 앞으로 김진규, (n.d.)로 인용.

www.kci.go.kr

1) 인격 형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격 형성은 신학 교육이나 사역을 배우기 전에 먼저 갖추어야 할 요소라고 본다. 그리스도의 제자훈련 사역의 초점이 여기에 있었고, 바울 서신에서 강조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여기에 방점이 있기 때문이다. 목회 현장에서 원활한 사역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목회자의 인격적 결함일 것이다. 그래서 신학이나 사역을 배우기에 앞서서 먼저 ‘사람다운 사람’으로 훈련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⁴⁷

(1) 영성

신학 교육에 있어서 영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19세기에 시작된 베를린 모델이 신학 교육의 영역을 장악하기 전에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살펴보았듯이 영성이란 요소는 일부 시기 외에는 항상 강조되어온 바이다. 앞에서 인용한 저자들 외에도 여러 저자들이 신학 교육에 있어서 영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⁴⁸ 영성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삶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이다. 기독교인의 덕성도 상당 부분 영성에 기초하고 있다(갈 5:22-23). 기독교인의 지혜(거룩한 지성)도 영성에 기초하고 있다. 하나님 자신이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이다(사 11:2). 그리스도인의 사역 능력도 영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전도와 양육과 봉사와 섬김의 사역이 영성 없이 가능할까? 영성은 그리스도인의 인격 형성의 모

47 여러 신학교에서 기독교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사람다운 사람’으로 훈련하기 위해 지표를 설정하고 있다. “백석학원의 설립 취지”에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8 Eugene H. Peterson, *The Contemplative Pastor: Returning to the Art of Spiritual Direction* (Grand Rapids: Eerdmans, 1989); Simon Chan, *Spiritual Theology: A Systematic Study of the Christian Life* (Downers Grove: IVP, 1998); Miller, 윗글; Mulholland, 윗글.

태와도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에는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야 하는가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은 하고 있지만 저자에 따라 다양한 관점을 갖고 있다. 몇몇 저자들이 말하는 영성의 구성 요소에 대해 먼저 간략히 기술하려고 한다. 톰슨(M. J. Thompson)은 렉시오 디비나(Lectio Divina) 스타일의 성경 읽기, 기도, 금식, 예배, 자기성찰과 죄의 고백, 다른 사람을 섬김, 교회 절기에 따른 영성 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⁴⁹ 멀홀랜드(M. R. Mulholland Jr.)는 영성을 ‘타인을 위해 그리스도의 형상이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기본적으로 정의하고 시작한다. 그는 총체적인 영성 훈련을 주장하는데, 사람들과의 관계, 직장, 휴식, 심지어 무의식의 세계까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의 세계까지 훈련해야 한다고 본다. 그는 특히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도록 훈련해야 하며, 영적 성장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훈련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나님께서 영성 형성을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들은 기도, 묵상, 성경 공부, 예배, 봉사와 같은 요소들이라고 말한다.⁵⁰ 척 밀러(Chuck Miller)의 책은 지도자의 영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도 영성을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시작한다. 그는 기도, 금식, 묵상, 성경 연구 등을 영성 훈련의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다. 영적 지도자의 성장을 위해서 공동체의 지지와 격려가 필요하며, 멘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삶을 먼저 경험한 멘토의 지혜와 안내가 영적 지도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리더가 직면할 수 있는 위험으로는 교만, 권력에 대한 욕구, 외

49 M. J. Thompson, *Soul Feast: An Invitation to the Christian Spiritual Life*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5), 1-208.

50 Mulholland, *읽기*, 1-224.

로움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⁵¹ 목회자의 영성에 대한 또 다른 영향력 있는 저자는 유진 피터슨(Eugene H. Peterson)이다. 그는 전통적인 목회자에 대한 관념에 대해 도전하면서, 목회자는 양들을 알고 돌보는 성경적 목자의 이미지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업무 계획으로 가득 찬 목회자가 되면 목회직에 필수적인 묵상하는 삶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바쁘지 않은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목회자에게 경청이 중요하기 때문에 목회자는 자기 생각을 교인들에게 주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도록 이끄는 목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목회자의 영성에 기도가 중요하지만, 특히 회중을 위한 중보자로서 역할이 중요하며, 설교를 위한 성경 연구가 아니라 말씀이 자기 삶에 깊이 스며들도록 영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한다.⁵²

앞에서 언급한 저자들의 영성의 요소에 대한 강조점에는 어느 정도 공통분모가 있다. 하지만 일반 성도를 위한 영성인가 목회자를 위한 영성인가에 따라서, 또 저자의 성향에 따라서 다소 다른 접근을 취하고 있다. 필자는 이들 영성가의 저술이 강조하는 바들과 함께 성경 자체가 강조하는 영성의 요소들을 함께 통합하여 다루려고 한다. 필자의 연구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성경적 영성의 요소들은 대략 16가지 정도로 함축된다. 복음의 능력, 성령 충만, 말씀, 기도, 순종, 예배, 자기 부정,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사랑, 믿음, 회개, 감사, 기쁨, 찬양, 거룩함, 고난 등이다.⁵³ 이들 16가지 항목 하나하나를 다루는 것은 이 연구논문의 범위를 벗어난다. 앞의 저자들이 이들 요소 중에 어느 정도는

51 Miller, 윗글, 1-348.

52 Peterson, 윗글, 1-180.

53 김진규, 윗글 (2019. 7), 7.

말했지만, 그중에 거의 언급되지 않은 항목은 복음의 능력, 자기 부정, 사랑, 믿음, 감사, 기쁨, 찬양, 고난 등일 것이다. 필자가 이전에 한국 교회와 파라치치의 제자훈련에서 강조하는 영성의 요소들과 필자의 16가지 요소들을 비교한 적이 있다. 그때의 연구 결과도 거의 비슷했다. 감사, 기쁨, 찬양이 대부분 빠져 있었고, 회개, 예배, 거룩 등의 요소가 빠진 훈련들도 있었다.⁵⁴

그런데 이들 영성의 요소 중에 가장 긴급하며 토대가 되는 중요한 요소는 어느 것일까? 나머지 모든 요소가 갖춰진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빠지게 된다면 영성 자체가 무너지는 기초적인 토대가 있다. ‘자기 부정’이 아닐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 진정한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먼저 요구하신 바이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눅 9:23). 예수님께서 제자도의 첫 번째 요구사항으로 이를 말씀하신 것은 의미심장하다. 자기 부정이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제자훈련 프로그램들은 대체로 이를 강조한다. 그런데 앞에서 검토한 저자들의 경우 아쉬운 점은 어느 누구도 자기 부정에 대해 다루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⁵⁵ 자기 부정은 단순히 몇 가지 금지 사항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다. 이는 우리의 근원적인 가치관과 욕망과 삶의 의미에 대한 전인적 개조

54 김진규, “한국 교회의 제자훈련 평가 및 균형 잡기: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성경과 신학』 91권 (2019년 10월), 1-48. 앞으로 김진규, (2019. L.)로 인용. 연구 대상 그룹은 옥한흠 목사, 김성곤 목사, 네비게이트, 두란노 제자훈련, 이영숙 선생의 훈련 등이다.

55 예외적으로 자기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는 신학자는 기독교 윤리학자인 라이홀드 니버(Reinhold Niebuhr)이다. 그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자기중심성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기부정이 해결책이라고 말한다. Reinhold Niebuhr,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A Christian Interpretation (Vol. I: Human Nature)*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64); Reinhold Niebuhr,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A Christian Interpretation (Vol. II: Human Destin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64), 93-126.

를 요청하는 도전이다. 내 생각, 내 뜻, 내 욕망, 내 가치관, 내가 우선순위에 둔 삶의 의미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대체하는 변화를 요구한다. 자신의 방식대로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했던 누구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었다(눅 9:59-62).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이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요체는 자기 부정에 있다’라고 역설했다.⁵⁶

(2) 덕성

덕성에 대해 논하기 전에 유사 개념들을 먼저 정리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도덕과 윤리와 덕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도덕과 윤리는 보통 그냥 구분하지 않고 일반인들이 사용한다. 그렇지만 학문적인 접근에서는 이들 개념의 차이를 정의한다. 필자의 연구에 의하면 도덕과 윤리가 모두 옳고 그름의 문제를 다루지만, 이들 용어는 기원과 범위와 맥락과 강조점과 유연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본다. 도덕은 개인적인 가치나 신념과 관계된 것이고, 윤리는 좀 더 포괄적인 도덕적 고려 사항들을 다루고, 전문적이거나 구조적인 환경 속에서 좀 더 조직적인 용어로 사용된다고 본다.⁵⁷ 그런데 여기서 다루는 이슈는 좀 더 좁은 의미에서 ‘덕 윤리’에 가까운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덕 윤리는 윤리학 이론 중에서 도덕적 행위나 윤리적 의사 결정을 위한 토대로써 덕스러운 성품을 함양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덕 윤리의 실례를 들자면 정직, 용기, 긍휼, 성실성, 친절, 지혜 등의 요소들이 포함

56 요한 칼빈, 「기독교 강요」(김종흡 외 옮김),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6), 제3권 7장.

57 ChatGPT, response to “What are the differences between morality and ethics?”, September 17, 2023, <https://chat.openai.com/c/23278c53-b717-4f9f-9468-5649ce3a9e91>. 위의 내용은 chatGPT 검색 결과를 검토 후 선별 및 보완 정리한 것이다.

된다.⁵⁸ 덕 윤리가 본 연구에서 다루는 덕성과 유사하기는 하지만 엄격히 말하자면 차이점이 있다.⁵⁹ 필자가 논하는 덕성은 성경에서 강조하는 덕 윤리들을 말하는 것이다.

영성이 주로 하나님과 관계된 인격적 요소라면, 덕성은 주로 사람들과 관계된 인격적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성경이 강조하는 덕성들은 대체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와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과 연관이 깊다. 이를 종합해서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은 덕목으로 간추릴 수 있다. 생각, 말, 행실, (이웃) 사랑, 긍휼, 정의, 정직, 경건, 겸손, 온유, 섬김, 충성, 정절, 인내, 절제, 화목, 양선 등 17가지 항목을 뽑아보았다.⁶⁰ 이들 중에서 생각, 말, 행실은 어떤 의미에서 덕성의 통로와도 같은 것이다. 생각과 말과 행실이 훈련되어야 올바른 덕성을 인격 속에 나타낼 수 있으므로 여기에 포함했다. 사랑은 영성에서도 다루었고, 이곳 덕성에서도 다룬다. 단지 대상이 다를 뿐이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기에 영성에서 다루었고, 이웃 사랑은 사람들과 관계되기에 덕성에서 다루고 있다. 이들 덕성의 요소 중에 특히 그리스도의 두드러진 덕성을 꼽으려면 아마 겸손과 온유일 것이다(마 11:29).

한국교회의 제자훈련 프로그램들을 검토한 결과 이들 덕성의 요소

58 ChatGPT, response to "What is the definition of virtue ethics?", September 17, 2023, <https://chat.openai.com/c/23278c53-b717-4f9f-9468-5649ce3a9e91>.

59 덕과 덕목에 대한 견해는 너무나 다양하므로 거의 합의점을 보지 못한다. 그리고 현대 도덕철학은 덕의 문제를 경시해왔는데, 그 이유는 덕을 주관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하우어워스는 덕 윤리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스텐리 하우어워스, 「교회됨」(문시영 옮김), (서울: 북코리아, 2010), 216-235. 원제는 Stanley Hauerwas, *A Community of Character: Toward a Constructive Christian Social Ethic*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91). 하우어워스는 다른 책에서 15가지의 덕목을 열거하고 있다: 자비, 진실함, 우정, 인내, 소망, 정의, 용기, 기쁨, 단순함, 한결같은, 겸손(과 유머), 절제, 너그러움, 믿음, 성품 등이다. 스텐리 하우어워스, 「덕과 성품」(홍중락 옮김), (서울: IVP, 2019), 1-215. 원제는 Stanley Hauerwas, *The Character of Virtue* (Grand Rapids: Eerdmans, 2018).

60 김진규, 윗글 (2020), 6-196.

중에 상당수가 부족함을 보였다. 옥한흠 목사, 김성곤 목사, 두란노 일대일, 내비게이토, 이영숙 선생의 훈련을 분석한 결과 이 프로그램 중에 반수를 넘는 프로그램은 단 하나도 없었다. 이들 17개 덕목 중에 옥한흠 목사가 일곱 개를 다루었고, 내비게이토가 여섯 개를 다루었고, 김성곤 목사는 그 많은 훈련 프로그램 중에 단 두 가지만 다루었다. 두란노 일대일 제자 양육 교재도 단 한 가지를 다루었는데, 이는 기초 양육과정이기 때문에 다루는 주제가 제한되어 있어 이해할 만하다. 이영숙 선생은 이들 중에 여덟 가지를 다루었지만, 그가 말하는 개념은 성경의 개념과 상당히 다른 것들이 있었다.⁶¹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약점으로 떠오른 것은 도덕성의 약화이다.⁶² 이들 제자훈련 프로그램들을 분석해보면 그 원인을 알 수 있다. 성도들의 덕성 개발을 위해서 덕목들을 골고루 훈련하지 않은 것이, 아마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아닐까?

(3) (거룩한) 지성

거룩한 지성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적 지혜’를 의미한다. 지혜 속에는 지식도 포함되기 때문에 거룩한 지성이란 명칭을 사용했다. 어떤 저자들은 지혜를 그냥 덕성의 한 부분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필자가 거룩한 지성을 별도의 항목으로 다루는 것은 이 요소가 별도로 다룰 만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지혜자의 대표적인 인물을 들자면, 구약시대에는 솔로몬일 것이다(왕상 4:29-30). 솔로몬의 지혜는 당시 고대 근동 지혜자들의 지혜를 능가했고,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61 김진규, *읽글* (2019. 1), 14-17.

62 황인호, “목회자들의 도덕적 실패가 한국교회 위기 불렀다”, 「국민일보」, <https://m.kmib.co.kr/view.asp?arcid=0012530559>; 한국일보, “한국교회 위기의 주범은 목회자들의 도덕적 실패”,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80725/1193184>.

사람이 찾아올 정도였다(왕상 4:30, 34).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지혜자의 대표자이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솔로몬보다 더 큰 이”(마 12:42)라고 표현하심으로써 자신의 지혜가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심을 암시하셨다.⁶³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었다고 성경은 또한 말한다(고전 1:30).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자질 중에 지혜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지혜도 충만한 사람들이었다(행 6:3). 그러므로 사역자를 양성하는 신학교는 학생들을 지혜자로 양성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성경적 지혜란 어떤 것일까? 필자의 연구에 의하면 성경적 지혜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올바른 관계의 기술’이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의 기술,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의 기술, 세상과 올바른 관계의 기술로 지혜를 정의하고자 한다.⁶⁴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가르친다(잠 1:7; 9:10). 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출발점이고 토대임을 의미한다.⁶⁵ 지혜는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의 기술들을 가르친다. 지혜 문헌들은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위해 의인과 악인, 사랑과 미움, 지혜와 어리석음, 정직과 거짓, 분노와 유순, 진실과 거짓말, 교만과 겸손, 부지런함과 게으름, 왕과 신하, 백성, 훈계 등 대인관계에 필요한 말씀들을 가르친다. 성경은 또한 세상과 올바른 관계의 기술도 가르친다. 재물에 대한 탐욕(잠 28:22), 뇌물(잠 17:8; 15:27; 29:4), 주의를 기울이는 삶(잠 23:12, 19), 환

63 Donald A. Hagner, *Matthew 1-13* (WBC 33A; Nelson Reference & Electronic, 1993), 355.

64 김진규, *윳글* (2020), 201-203.

65 개역개정에 ‘근본’이라고 번역된 원문은 ‘레쉬트(1:7)/테힐라(9:10)’인데, 이는 영어 성경들이 번역하고 있듯이 ‘시작’(beginning)이라는 뜻이다. 위키 교수는 이는 수직적인 선상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에 모든 것이 달린 것, 즉 토대를 의미한다고 본다. Bruce K. Waltke, *The Book of Proverbs: Chapters 1-15* (NICOT; Grand Rapids: Eerdmans, 2004), 181.

난의 때의 대처법(잠 24:10), 보증서는 일(잠 6:1~5), 계획의 중요성(잠 20:18), 왕의 통치법(잠 8:15; 16:12; 20:26, 28) 등을 가르친다. 지혜에 대한 이 기본적인 정의는 성경의 지혜의 의미를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데는 미흡함이 있지만 이는 지혜를 이해하는 출발점으로서 도움이 될 것이다.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를 좀 더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실행하기 위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의 유의어(類義語)들을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필자의 연구에 의하면, 특히 잠언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혜의 유의어들을 포함하고 있다: 지식, 명철, 훈계/교훈, 슬기, 분별력, 통찰력, 신중함, 지략 등이다.⁶⁶ 잠언에서 이들 용어는 지혜와 자주 대구법 형태로 등장하면서 의미를 강화한다. 그렇지만 이들 용어는 지혜의 특정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신학 교육 현장에서 이들 각 요소의 개발을 위해 사용한다면 균형 있는 거룩한 지성 계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4) (사역의) 능력

예수님의 인격을 논한다면 그의 사역의 능력을 빼고 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역 능력을 본받는 것도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사역의 능력은 예수님의 삼대 사역에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얻었다(마 4:23; 9:35). 전도, 가르침, 봉사 사역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사역 훈련'에서 주로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지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한 부분임을 밝히는 차원에서 간략히 다루고자 한다.⁶⁷

66 김진규, 윗글 (2020), 198-228. 이들 지혜의 각 요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필자의 저술을 참고하길 바란다.

67 김진규, 윗글 (n.d.).

(5) (하나님 나라) 비전

지도자 인격의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는 그의 비전일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성도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는 어떤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할까? 필자의 연구에 의하면, 대략 네 가지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확장되어야 한다고 본다.⁶⁸

첫째, 대사명 성취의 비전이다(마 28:18-20).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비전을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남기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리스도인들은 대사명의 비전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데 대해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둘째, 대계명 성취의 비전이다(마 22:37-40). 이는 전인적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영성과 덕성의 요소이기도 하다. 여기서 비전의 한 요소로 통합해서 다루는 이유는 기독교에 있어서 '사랑'은 우리의 비전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에선 예수님 자신께서도 이를 '새 계명'으로 가르치셨다(요 13:34).⁶⁹ 어떤 의미에선 신약시대 성도들이 십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방법은 사랑의 새 계명을 실천할 때 가능하다고 본다(롬 13:10). 대계명을 먼저 실천하지 않고는 대사명을 제대로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제자 삼는 일이 사랑 없이 가능할까? 그래서 대계명을 별도의 비전으로 삼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68 김진규, *윳글* (2019. 1.), 20-22.

69 카슨에 의하면 '새 계명'이란 의미는 이전에 없었던 것을 새롭게 가르친다는 차원이라고 보다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범("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을 따라 사랑하는 관점에서 새롭게 하는 것이다. D. A. Carso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Grand Rapids: Eerdmans, 1991), 483-484.

셋째, 선행의 비전을 제안한다. 이는 개신교의 약점을 상쇄하려는 조치이기도 하다. 개신교에서는 ‘오직 믿음’을 강조한 나머지 행위나 선행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역설적으로 믿음을 부각하기도 한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다. 성경은 선행을 엄청나게 강조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딤후 2:4)으로 삼기 위해서이다. 선을 행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정하고 산다면 우리 개신교의 사회적 이미지가 훨씬 달라질 것이다.

넷째, 문화명령의 비전(창 1:28)을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신학은 목회자들만을 위한 신학이 아니다, 신학은 평신도들을 위한 신학이기도 하다. 평신도들은 일주일의 대부분 시간을 직장에서 보낸다. 이들의 삶의 영역에서 신학화하는 작업은 문화명령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할 때 가능하다고 본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자기 직업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부르셨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문화명령의 비전을 가슴 깊이 새기고 직업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 이는 목회자들뿐 아니라 자신의 직무를 통해서 이루어야 할 과업이요, 우리의 비전이다.⁷⁰ 문화명령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이해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⁷¹

2) 사역 훈련

70 이상의 네 가지 비전은 필자의 이전 글에서 인용한 것이다. 김진규, *윗글* (2019. 1.), 20-22.

71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몇몇 저술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James W. Sire, *The Universe Next Door: A Basic Worldview Catalog* (Downers Grove: IVP, 1976); William L. Craig, *Reasonable Faith: Christian Truth and Apologetics* (Wheaton: Crossway Books, 1984); Nancy Pearcey, *Total Truth: Liberating Christianity from its Cultural Captivity* (Wheaton: Crossway Books, 2004).

팔리에 의하면 신학은 학문적인 훈련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되고, 교회 공동체의 삶과 사명에 이바지하는 신학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 신학 교육은 교회 생활과 실제적인 실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⁷² 팔리의 견해는 신학 교육의 원조이신 그리스도의 사역 정신과 일치한다. 예수님의 제자훈련은 이론을 위한 교육이 결코 아니었다. 그의 훈련에는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인재들로 훈련하는데 초점이 있었다. 그는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비전(마 4:19)을 갖고 부르셨고, 사람 낚는 어부로 훈련(마 10장)하셨고, 마지막엔 사람 낚는 어부의 비전(마 28:18-20)을 사명으로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지금 지구상에 약 25억 명의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훈련 비전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최상의 모델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그런데 신학 교육의 베를린 모델은 이 점이 상당히 빈약함을 앞에서 보았다. 현재 베를린 모델의 주도적인 영향을 받은 한국 신학 교육 기관들은 이 모델의 약점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학문의 상아탑에 갇혀 있게 되면 신학 교육의 본연의 목적을 상실하게 된다.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시면서 모범을 보이신 모델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앞에서 말한 예수님의 삼대 사역(마 4:23; 9:35)을 신학교에서 신학도들에게 철저히 훈련할 필요가 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 4:23).

72 팔리, *위글*, 201-208. 이는 앞에서 보았듯이 하프와 콥, 하프와 윌러, 벵크스, 곤잘레스 등이 강조했고,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 강조되어온 바이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삼대 사역을 잘 요약하고 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정신을 잘 계승하기 위해서 신학 교육 기관들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전도의 전문가들로 훈련할 필요가 있다. 요즘 신학생 중에는 전도를 전혀 해보지 않은 학생들이 너무나 많다. 이들이 졸업한 후에 제대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영혼을 낚는 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신학 교육에 반드시 전도 교과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단지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전 경험을 통해서 전도의 전문가로 거듭나도록 신학도들을 훈련할 필요가 있다.⁷³

둘째,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가르쳤다. 예수님을 본받아 영혼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신학교들은 신학생들을 가르침의 전문가로 훈련할 필요가 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목적 없는 가르침이 아니었다. 그의 가르침에는 영혼을 단계적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가르치셨다. 옥한흠 목사의 제자훈련 강점은 바로 이런 분명한 목표 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새가족반을 통해 새신자를 양육하고, 이어서 제자반을 통해 좀 더 성숙한 제자들로 훈련하고, 사역반을 통해서 교회의 리더십을 감당할 평신도 사역자로 훈련하고 있다.⁷⁴ 성공적인 훈련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가르침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신학교는 신학도가 영혼이 어떻게 자라는가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맞는 훈련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인재로 양성되도록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는 단지 이론

73 신학생 시절에 적어도 사영리(P4U)나 브릿지나 전도폭발이나 혹은 자신만의 독특한 전도 방법으로 복음을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74 새신자부터 단계별 양육 교재는 다음과 같다. 옥한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새가족 모임 교재」(서울: 국제제자훈련원, n.d.);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제자훈련 교재」(서울: 두란노, 1991);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사역훈련 교재」(서울: 두란노, 1991).

만으로 되는 교육이 아니다. 교회와 협력하여 인턴십 과정을 통해 가르침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유하신 사역은 오늘날 의술이 발전하면서 상당 부분 의료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오늘날 봉사과 섬김의 사역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⁷⁵ 예수님은 병자들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되고,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뻗으셨다. 신학도들은 적어도 신학 교육을 받는 동안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어디서, 어떻게 접촉하고,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 기술도 연마할 필요가 있다. 소외되고, 죄인 취급 받는 사람들 접근할 때, 상담학 지식도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신학교를 졸업한 후 목회 현장에 가도 실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신학 교육은 이론만의 지식이 아니라, 실제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지식이라야 사역의 현장에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필자가 예수님의 삼대 사역 외에 한 가지 더 추가하고자 한다. 그것은 ‘은사 계발’이라는 항목이다.⁷⁶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닌 분으로서 모든 영적인 은사가 충만한 분이셨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는 사역의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은사가 꼭 필요하다. 은사는 내가 계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사이다. 본래 타고난 재능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

75 그렇다고 필자는 예수님의 치유사역의 현재적 연속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1996년 6월 24일에 발간된 TIME지에는 “믿음과 치유”(Faith & Healing)란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는 미국의 여러 의과대학과 의료기관들이 믿음과 치유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실험한 결과를 보도하고 있다. 기도를 받은 그룹이 기도를 받지 않은 그룹에 비해 대체로 3배의 치료의 효과가 더 있었음을 통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병자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치유사역의 근본적인 정신은 봉사와 섬김에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76 김진규, *윳글* (2019. 1.), 19-20.

신 은사가 있어야 제대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영적인 은사의 목록(예, 고전 12:8-10)을 연구하여 젊어서부터 이런 은사를 주시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다. 은사는 주로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찍부터 이런 은사를 주시도록 기도하여 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후 1:11). 그러면 사역의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일하게 될 것이다.

신학 교육 현장에서 사역의 기술을 제대로 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사역의 기술을 훈련할 수 있는 커리큘럼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가능하면 교회와 협력하여, 현장 경험이 많은 목회자들을 영입하여 교수와 함께 팀티칭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삼대 사역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누구나 실천해야 할 기본적인 사역의 기술들이기 때문에 신학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는 신학 교수들은 전공에 상관없이 이런 사역의 전문가가 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반대학 속에 있는 신학 교육 기관에는 많은 비신자 학생이 들어온다. 이들을 전도하는데, 신학 교수들이 앞장선다면 귀한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신학도의 실제적인 훈련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가르침의 사역도 학생들을 양육자의 심정으로 단계적인 목표를 갖고 체계적으로 훈련한다면 학생들의 영적인 성장에서뿐만 아니라, 양육의 과정을 학생들이 익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섬김과 봉사 사역도 학생들과 함께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면 미래 이들의 사역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3) 신학 지식

현재 신학 교육이 상당히 전문화되어 있는데, 이의 장점도 있지만

이의 단점도 많다고 본다.⁷⁷ 신학 교육의 전문성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 되, 이의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 무엇을 위해 신학의 전문성을 추구하는가? 학문적인 우수성이 목표인가? 신학 교육에는 또 다른 우선되어야 할 중요한 목표가 있다고 본다. 이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신학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학문의 상아탑에 갇힌 신학이 되어서는 안 되고, 앞에서 말한 기독교인 성개발에 도움이 되고, 사역의 기술을 연마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연구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 신학 교육의 추세를 살펴보았다. 초대교회 시대나 중세 수도원 운동이나 종교개혁자들이나 독일의 경건주의자들이 강조한 것은 사변화된 신학을 지양(止揚)하고 인격 개발과 목회 현장에 도움이 되는 신학을 요청하고 있다.

그런데 19~20세기에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대학의 출현으로 베를린 모델이 신학계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오늘날 신학 연구가 지나치게 세분되고, 전문화되고, 학문화되고, 사변화되어 버렸다. 특히 성경의 권위를 추락시킨 역사비평학의 등장은 서구교회의 황폐화를 가져온 주범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필자의 소견에는 1969년 제임스 마일렌버그(James Muilenburg)가 SBL회장 연설에서 발표한 연구논문이 역사비평학의 한계를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라고 본다.⁷⁸ 마일렌버그가 양식비평의 한계를 깨닫고 수사비평을 제안하면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자는

77 신학의 전문화로 인해 구약 이해에 도움을 준 학문이 있다면 아마 고대근동학일 것이다. 고세진 박사는 한국 신학교들이 고대근동학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고세진, “고대근동학의 한국신학 교육계 적용과제”, 「구약논단」 16집 (2004년 4월), 245-262.

78 James Muilenburg, “Form Criticism and Beyond”, *JBL* 88/1 (1969), 1-18. 마일렌버그가 양식비평에 일격을 가했다면, 로버트 올터(Robert Alter)는 자료 비평에 대한 대안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과거에 자료로 설명했던 것을 올터는 성경의 문학적 기법인 전형적 장면(type scene)으로 설명한다. Robert Alter, *The Art of Biblical Narrative* (NY: Basic Books, 1981).

공시적 접근이 성경 연구의 주된 연구방법론으로 등장하게 된다. 그 이후 역사비평학에 매였던 과거를 벗어나고, 문학비평, 수사비평, 서사비평, 구조비평, 정경비평 등 성경을 공시적으로 보면서 실제 설교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는 성경 연구방법론의 기초를 놓게 되었다. 이런 공시적 접근방법은 설교에의 도움이라는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갖는다면 학문 연구뿐만 아니라 실제 목회나 설교 사역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필자는 구약의 수사비평 방법론과 문학 양식들을 연구하면서, 구약의 수사비평과 내러티브와 운문체 연구가 설교 수사법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⁷⁹

또 하나 신학 교육에 있어서 지나친 전문화에서 오는 파편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학 전공 분야를 서로 통섭하고 융합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점에 대해서도 팔리가 이미 잘 지적하고 있다.⁸⁰ 필자의 연구에 의하면 성서학과 설교학 간에는 긴밀한 융합적인 연구가 필요한데, 성서학자들은 성서학의 길로, 설교학자들은 설교학의 길로 가버린 느낌이다. 성경해석은 결국 설교학과 연결이 되어 설교에 유익을 주는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서학자는 설교학자들의 책을 열심히 연구하여 실제 목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반면에 설교학자들도 성서학에 관한 연구를 열심히 하여 성서학 위에 세워진 설교학을 도출하게 될 때, 신학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설교학자들은 성경해석학과는 상관이 없는 새로운 성경 연구법을 마련하여

79 김진규, 「구약성경에서 배우는 설교 수사법」(천안: 생명의 샘, 2019). 앞으로 김진규, (2019. ㄷ)로 인용. 이 책은 한국연구재단 저술출판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연구한 저술이다(과제번호: 2014S1A6 A4027097). 다음 책도 구약 운문체의 기교를 설교에 적용한 저술이다. 김진규, 「히브리 시인에게 설교를 배우다: 청중의 가슴을 뛰게 하는 생생한 설교 언어」(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5).

80 팔리, 윗글, 171-228.

설교에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⁸¹ 반면에 성서학자들은 설교와는 상관 없는 깡마른 이론에 깊이 심취한 경우들을 보게 된다. 필자는 「성경 묵상 어떻게 할까?」라는 줄거에서 부족하지만, 성경해석학과 설교학의 융합과 통섭을 시도하였다.⁸² 전통적인 성경해석학 원리들을 논한 후에 설교학자들의 강점들을 수용하여 설교를 위한 핵심 메시지를 파악하도록 시도하였고, 말씀의 적용에도 설교학자들의 이론을 포함했다. 성경해석학을 다루면서 성경해석 이론 연구에서 멈추지 않고 설교까지 연결되도록 시도하였다. 이런 시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성서학, 조직신학, 교회사, 실천신학 등을 아우르는 융합적, 통섭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목회자는 이들 전공의 분리된 이론을 갖고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융합하고 통섭하여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여 사역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학계의 주된 화두도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통섭과 융합에 있다.⁸³ 이런 학문적인 추세를 고려하더라도 신학 전공 간의 지나친 구획화나 파편화를 피하고 융합과 통섭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81 예를 들면, 해돈 로빈슨의 '빅 아이디어'(big idea)의 개념은 해석학적인 결과를 융합하여 도출한 이론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도입한 것이다. 이는 설교에 매우 유용한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해석학과 별개로 만든 이론이기 때문에 이의 문제점이 해석학적 과정을 간과한 데 드러난다. 로빈슨의 빅 아이디어 개념에는 오늘날 청중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적실한 진리와 원리'로 변환하는 과정을 빠뜨리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빅 아이디어 개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많은 구약 본문들은 '적실한 진리와 원리'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점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Haddon W. Robinson, *Biblical Preaching: The Development and Delivery of Expository Messages*, 2nd ed.,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1), 33-50. 적실한 진리와 원리에 대해서는 필자의 저술, 「성경 묵상 어떻게 할까?: 성경해석 원리를 응용한 26가지 성경 묵상법」(천안: 생명의 샘, 2019), 268-274에서 다루고 있다. 앞으로 김진규, (2019. ㄱ)로 인용.

82 윗글.

83 이 분야의 책을 추천하자면 다음과 같다. 에드워드 윌슨, 「지식의 대통합: 통섭」(최재천/장대의 옮김), (서울: 사이언스북스, 2011), 원제는 Edward O. Wilson, *Consilience: The Unity of Knowledge*, (NY: Alfred A. Knopf, 1998); 최재천 외, 「창의 융합 콘서트」(과주: 엘도라도, 2019).

5. 나가는 말

근대 계몽주의 사조가 대학교육과 신학 교육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 인간의 이성을 절대화하면서 신학이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학자들이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대학에서 내쫓으려고 하자 신학 교육의 베를린 모델이 출현하게 되었다.⁸⁴ 신학을 철학 사조와 빗대어 설명하거나 성경의 학문성을 입증하기 위해 역사비평학이 등장하게 되었다. 역사비평학은 영미권에도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 신학교로 시작한 하버드대학과 예일대학과 프린스턴대학이 전격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이에 반발한 보수주의적 성향의 교수들이 뛰쳐나와 웨스트민스터신학교를 설립하기도 했다. 그 이후 진보와 보수의 대립은 더욱 깊어지게 되었다.

베를린 모델은 신학의 지나친 학문성과 전문성을 강조한 나머지, 목회적 영성이나 덕성이나 지혜나 사역의 기술들에 대해서는 등한히 여기게 되었다. 또 신학의 영역으로부터 평신도들이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신학이 너무 전문화되어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평신도들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학문 영역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초대교회 시대의 세례 문답 교육에서

84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양날의 검과 같다. 한편으로 신학의 학문성을 옹호하기 위해서 신학자들은 역사비평 방법론을 만들어 냈다. 다른 한편으로 쇠렌 키에르케골, 칼 바르트, 폴 틸리히 등과 같은 신학자들은 이를 수용하였다. 신학은 인간의 이성적 사고를 뛰어넘는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인정하기 때문이다. ChatGPT, response to "Tell me the key figures who insisted that theology is not academics or science." September 24, 2023, <https://chat.openai.com /c/9011dc9e-8dd2-46b0-b26f-147fc403d8b2>.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주장과 함께 신앙을 잃어버린 신학자도 있다. Gerd Lüdemann, "Diese Theologie ist keine Wissenschaft", <https://www.user.gwdg.de/~gluedem/ger/t101007.htm>. 신약 교수인 뤼데만의 경우에는 신학이 학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진술은 어느 관점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 신앙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은 명제이다.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 신학은 목회자들 뿐신도든 모든 성도를 위한 교육이었고, 성경과 교리와 인격과 덕성의 형성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었다. 오늘날 이에 가장 근접한 훈련 모델이 있다면 파라치치와 옥한흠 목사의 제자훈련 모델이라고 제안했다. 이런 제자훈련은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2~3년간 성경 교육과 함께 인격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동시에 사역 훈련도 병행하고 있다. 제자훈련 모델이 오늘날 베를린 모델의 영향을 받은 신학 교육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개선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제자훈련 모델의 강점에도 불구하고 성서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필자는 인격 형성을 위해 영성, 덕성, 거룩한 지성, 사역의 능력, 하나님 나라 비전 등 다섯 가지를 제안하였다. 성경에 기초하여 영성의 요소를 16가지, 덕성의 요소를 17가지, 지혜(거룩한 지성)의 요소 9가지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사역의 능력으로는 전도, 양육, 섬김과 봉사, 그리고 은사 계발을 포함했고,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는 대사명의 비전, 대계명의 비전, 선행의 비전, 문화명령 성취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사역의 능력은 그리스도인이 계발해야 할 인격의 한 요소이지만, 이는 별도로 발전시켜야 할 사역 훈련 요소이기에 신학 교육과정에 이를 포함하도록 제안하였다. 신학교들은 신학도들을 전도의 전문가, 양육과 교육의 전문가, 섬김과 봉사의 전문가가 되도록 훈련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 선물의 영역에 속하는 은사 계발은 기도를 통해 갖춰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신학 지식의 영역을 위해서 두 가지를 제안하였다. 먼저 신학 교육의 목표를 분명히 할 것을 제안했다. 신학 교육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어 필요가 있고, 신학도의 인격 함양과 사역의 능력 계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강

조했다. 다음으로 신학 전공 간에 융합과 통섭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실제 학문 발전과 사역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고세진, “고대근동학의 한국신학 교육계 적용과제”, 「구약논단」 16집 (2004년 4월), 245-262.
- 김진규, 「히브리 시인에게 설교를 배우다: 청중의 가슴을 뛰게 하는 생생한 설교 언어」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5).
- _____,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아 (영성편)」 개정판 (기독교 인성교육 지침서 시리즈 1; 천안: 생명의 샘, 2019), (2019. ㄱ).
- _____, “한국 교회의 제자훈련 평가 및 균형 잡기: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성경과 신학」 91호 (2019년 10월), 1-48, (2019. ㄴ).
- _____, 「구약성경에서 배우는 설교 수사법」 (천안: 생명의 샘, 2019), (2019. ㄷ).
- _____, 「성경 묵상 어떻게 할까?: 성경해석 원리를 응용한 26가지 성경 묵상법」 (천안: 생명의 샘, 2019), (2019. ㄷ).
- _____,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아 (덕성, 지성편)」 (기독교 인성교육 지침서 시리즈 2; 천안: 생명의 샘, 2020).
- _____,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아 (능력, 비전편)」 (기독교 인성교육 지침서 시리즈 3; 출판 예정).
- 바티스타 몬딘, 「신학사 1」 (조규만 외 옮김), (서울: 가톨릭출판사, 2012). 원저 Mondin, Battista, *Storia della Teologia I* (Bologna, Italy: PDUL Edizioni Studio Domenicano, 1996).
- _____, 「신학사 2」 (이재룡 옮김), (서울: 가톨릭출판사, 2017). 원저 Mondin, Battista, *Storia della Teologia II* (Bologna, Italy: PDUL Edizioni Studio Domenicano, 1996).
- _____, 「신학사 3」 (윤주현 옮김), (서울: 가톨릭출판사, 2018). 원저 Mondin, Battista, *Storia della Teologia III* (Bologna, Italy: PDUL Edizioni Studio Domenicano, 1996).
- 박경수, “16세기 체네바 교회의 목회자 선발과 훈련에 관한 연구: 한국교회의 목회자 위기 극복을 위한 모색”, 「장신논단」 44권 2호 (2012년), 173-197.
- 박영희, “한국교회와 신학 교육”, 「신학지남」 57권 2호 (1990년 6월), 6-26.

- 박정근, “독일 경건주의 신학 교육: 슈페너의 「경건의 소망」(Pia Desideria, 1675) 그리고 「신학 연구의 방해 요소에 관하여」(De impedimentis studii theologici, 1690)를 중심으로”, 「한국교회사학회지」 63호 (2022년), 115-146.
- 스탠리 하우어워스, 「교회됨」(문시영 옮김), (서울: 북코리아, 2010). 원제 Hauerwas, Stanley, *A Community of Character: Toward a Constructive Christian Social Ethic*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91).
- _____, 「덕과 성품」(홍종락 옮김), (서울: IVP, 2019). 원제 Hauerwas, Stanley, *The Character of Virtue* (Grand Rapids: Eerdmans, 2018).
- 양명수, “신학 교육 어떻게 해야 하나?”, 「기독교사상」 665호 (2014년 5월), 64-72.
- 에드워드 윌슨, 「지식의 대통합: 통섭」(최재천/장대익 옮김), (서울: 사이언스북스, 2011), 원제 Wilson, Edward O., *Consilience: The Unity of Knowledge* (NY: Alfred A. Knopf, 1998).
- 에드워드 팔리, 「신학 교육의 개혁: 신학 교육의 분열과 통일」(서울: 부흥과개혁사, 2019). 원제 Farley, Edward, *Theologia: The Fragmentation and Unity of Theological Education* (Oregon: Wipf and Stock, 2001).
- 옥한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새가족모임교재」(서울: 국제제자훈련원, n.d.).
- _____, 「평신도를 깨운다: 제자훈련 교재」(서울: 두란노, 1991).
- _____, 「평신도를 깨운다: 사역훈련 교재」(서울: 두란노, 1991).
- _____, 「평신도를 깨운다: 제자훈련의 원리와 실제」(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1).
- 요한 칼빈, 「기독교 강요」(김종흡 외 옮김),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6).
- 우택주, “교회갱신을 위한 성서교육: 분석과 제안”, 「구약논단」 72집 (2019년 6월), 174-201.
- 이재석, “선교적 제자도의 관점에서 본 신학 교육 모델의 재고”, 「선교신학」 55호 (2019년 1월), 258-298.
- 임성은, “예수의 제자훈련과 신대원 신학 교육 비교연구”, 「신학과실천」 68호 (2020년 1월), 451-474.
- 정일용, “미래, 한국교회의 목회자 양성을 위한 신학 교육 개선에 관한 연구: 커리큘럼과 신학 교육방법론을 중심으로”, 「신학지남」 73권 3호 (2006년 9월), 11-48.
- 최재천 외, 「창의융합 콘서트」(파주: 엘도라도, 2019).
- 한국일보, “한국교회 위기의 주범은 목회자들의 도덕적 실패”,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80725/1193184>.
- 황금봉, “목회자의 인격과 하비투스적 신학 교육”, 「목회와신학」 32호 (2009년),

- 197-224.
- _____, “신학 실천을 위한 목회자의 신학과 영성의 상관관계 고찰: 본회퍼의 실천 신학적 신학과 영성을 중심으로”, 『신학과목회』 34호 (2010년 11월), 39-70.
- 황인호, “목회자들의 도덕적 실패가 한국교회 위기 불렀다”, 『국민일보』, <https://m.kmib.co.kr/view.asp?arcid=0012530559>.
- 후스토 곤잘레스, 『신학 교육의 역사』 (김태형 옮김),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9).
- 원제 González, Justo L., *The History of Theological Education* (Nashville: Abingdon, 2015).
- Alter, Robert, *The Art of Biblical Narrative* (NY: Basic Books, 1981).
- Banks, Robert J., *Reenvisioning Theological Education: Exploring a Missional Alternative to Current Models* (Grand Rapids: Eerdmans, 1999).
- Carson, D. A.,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Grand Rapids: Eerdmans, 1991).
- Chan, Simon, *Spiritual Theology: A Systematic Study of the Christian Life* (Downers Grove: IVP, 1998).
- Craig, William L., *Reasonable Faith: Christian Truth and Apologetics* (Wheaton: Crossway Books, 1984).
- Hagner, Donald A., *Matthew 1-13* (WBC 33A; Nelson Reference & Electronic, 1993).
- Hough, Joseph C. Jr./Barbara G. Wheeler, *Beyond Clericalism: The Congregation As a Focus for Theological Education* (Chico, CA: Scholars Press, 1988).
- Hough, Joseph C. Jr./John B. Cobb Jr., *Christian Identity and Theological Education* (Studies in Religious and Theological Scholarship, No 1; Chico, CA: Scholars Press, 1985).
- Kelsey, David H., *Between Athens and Berlin: The Theological Education Debate* (Oregon: Wipf and Stock, 2011).
- Lüdemann, Gerd, “Diese Theologie ist keine Wissenschaft,” <https://wwwuser.gwdg.de/~gluedem/ger/t101007.htm>.
- Miller, Chuck, *The Spiritual Formation of Leaders* (Maitland, FL: Xulon Press, 2007).
- Muilenburg, James, “Form Criticism and Beyond,” *JBL* 88(1) (1969), 1-18.
- Mulholland, M. Robert, Jr., *Invitation to a Journey: A Road Map for Spiritual Formation*, rev. ed. (Downers Grove: IVP, 2016).
- Niebuhr, Reinhold,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A Christian Interpretation* (Vol. I: Human Nature)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64).

- _____,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A Christian Interpretation* (Vol. II: Human Destin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64).
- Pearcey, Nancy, *Total Truth: Liberating Christianity from its Cultural Captivity* (Wheaton: Crossway Books, 2004).
- Peterson, Eugene H., *The Contemplative Pastor: Returning to the Art of Spiritual Direction* (Grand Rapids: Eerdmans, 1989).
- Robinson, Haddon W., *Biblical Preaching: The Development and Delivery of Expository Messages*, 2nd ed.,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1).
- Sire, James W., *The Universe Next Door: A Basic Worldview Catalog* (Downers Grove: IVP, 1976).
- Thompson, M. J., *Soul Feast: An Invitation to the Christian Spiritual Life*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5).
- Waltke, Bruce K., *The Book of Proverbs: Chapters 1-15* (NICOT; Grand Rapids: Eerdmans, 2004).

검색어

신학 교육, 인격 형성, 사역 훈련, 신학 지식, 베를린 모델

[ABSTRACT]

Three Essential Elements of Theological Education Examined over the 2,000 Years of Church History: Character Formation, Ministry Training, and Theological Knowledge

Jinkyu Kim

Baekseo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riefly examine the history of theological education over the past 2,000 years of church history and to propose three essential elements for modern theological education. As a research method, we first adopt a church-historical approach to theological education, and then pursue a biblical-theological and thematic approach concerning character formation elements. We discover that the history of theological education centers on character formation, ministry training, and theological knowledge. The Berlin model, prevalent in our times, has so emphasized expertise and originality in theological education that it often neglects character formation and ministry training. These shortcomings can be overcome by drawing insights from the disciple training model, which excels in both character formation and ministry training.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lies in detailing training domains using a biblical thematic approach, covering spirituality, virtue, wisdom, ministry skills, and vision as pillars of character formation.

www.kci.go.kr

key words

Theological Education, Character Formation, Ministry Training, Theological Knowledge, Berlin Model

투고일 : 2023년 10월 09일

심사일 : 2023년 10월 29일

게재 확정일 : 2023년 11월 21일

www.kci.go.kr